옥관문화훈장 수훈

망운암 성각 스님

남해 망운암 주지 성각 스님의 옥관문화훈장 수훈 기념법회가 열렸다.

11월 14일 오후 6시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법회에서는 불자대표 탤런트 전원주의 발원문 낭독, 성각 스님 지인들의 축사·격려사가 이어졌다. 성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항상 깨달음을 구하고 그 깨달음을 중생과 함께 하기 위해 선서화를 그릴 뿐. 부끄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옥관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성각 스님은 30여 년 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선서화에 담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법회와 전시가 만나 축제가 된다

12월 4~7일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열려

법회와 전시컨벤션이 결합한 불교문화축제가 12월 부산에서 최초로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를 개최한다.

주요 행사로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가운데 매일 오후 3시 벡스코 제2전시장 특설무대에서 4일 팔재계수계법회, 5일 연등공양관음기도, 6일 영가천도지장기도, 7일 대입합격발원합동기도 순으로 이어진다.

또 전시장 내 200여개의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불교 산업 유관업체 150여 곳이 참가하는 불교박람회도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업체로는 차, 승복, 불상, 석조물, 불교미술, 향, 불교여행사,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전국 약 150여 업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그밖에 바라밀 예술단, 부산연예인봉사단 등 각종 불교예술단체의 민요, 성악, 마술쇼, 선무도 시연, 불자가수공연 등으로 신행과 불교문화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불교축제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축제 기간동안 부산 경남 지역 사부대중 10만 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은 "기존의 팔관회에 불교문화엑스포를 접목해 우리나라 대표 불교문화축제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한, 중, 일 및 동남아 불교권 국가를 초청해 국제적인 전시 컨벤션 불교행사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2월 4~7일 부산 해운데 벡스코에서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팔관회 모습.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09년 세계불교문화엑스포를 준비 중이다. 전세계 불자가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 세계불상전시, 해외고승초청법회 등을 통해 서로의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택시가 대웅전입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 창립 20주년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김기태)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1월 20일 오전11시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 지도법사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을 비롯해 개인택시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달리는 법당'이란 슬로건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모두가 불교홍포에 전력하는 주지이고, 택시가 바로 부처님께서 정좌하신 대웅전이고 극락보전"이라며 "앞으로 100년을 지향하는 부처님 정법포교단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념법회에는 소년소녀가장 23명을 초청해 택시 차량 내 모금함을 통해 모은 장학금으로 각 50만원씩 총 1150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가 모금함으로 모은 장학금을 소녀소녀가장 23명에게 전달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 김기태 회장은 "오늘 학자금을 받은 학생 모두가 오늘을 기회로 내 주변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내가 먼저 돌보겠다는 마음,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정진해 우리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운전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구현하고 불국토를 만드는 개인택시기사모임이다.

1988년 창립 이후 12차례 총 6700만원의 성금을 불우이웃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해왔다. **박지원 기자**

"이제 부처님과 친해졌어요"

범어사, 비불자 어린이 지도교사 템플스테이

부산에서 불교어린이집·유치원 비불자 지도교사를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사)동련(이사장 지현)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범어사 말사 및 부산지역 불교어린이집·유치원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란 주제로 비불자 교사들이 불교어린이집·유치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5일 오후2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론강의, 저녁예불, '어린이용 선체조' 실습, 촛불발원과 명상 등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새벽 3시 새벽예불 후 명상 108배, 계명암 암자순례, 운력, 회향식을 끝으로 회향됐다.

'어린이용 선체조' 실습을 통해 불교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비불자 교사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중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직접 강의한 '어린이용 선체조' 수업은 연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불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타종교인이거나 무교인 점에 주목해, 사홍서원 퍼즐 맞추기, 합장주 만들기, 만다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사)동련 정일훈 교육지원팀장은 "참가자 대부분은 불교에 무관심했었는데 교육이 끝난 후 불교와 부처님, 불상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고, 불교의 근본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불교보현회

"봉사 아니라 부처님 법 따를 뿐"

세 살 때부터 기른 천진이는 올 가을 군에 입대했고, 미선·도훈 남매는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 성윤·대광·대복 3형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정이는 간호대학, 세진이는 사회복지사를 꿈꾼다. 이들에겐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 낳아주진 않았지만 20년 넘게 길러주고 보살펴준 부모가 같다는 것이다. 부산경남 수백 명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준 이들은, 바로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다.

부산불교보현회는 1982년 7월 보름 창립멤버 13명으로 결성됐다. 27년이 지난 현재 회원은 약 300명으로 늘어났다. 공무원, 주부, 시장 상인, 회사원 등 직업도 다양하다.

27년동안 한결 같이 보시를 실천해 온 부산불교보현회 회원들.

27년째 부산불교보현회를 지켜온 안성이 회장은 "이웃에 사는 실명위기 독거노인의 눈을 고치려고 탁발로 돈을 모아 치료해 드렸다"며 "거짓말처럼 6개월 만에 할머니는 시력을 되찾았고, 그 일을 계기로 보현회를 창립했다"고 보현회의 처음을 회상했다.

회원들의 집을 돌면서 가정법회를 시작하고, 이때 모인 회비와 후원금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27년 전부터 부산불교보현회의 회비는 '없다'. 최저 1000원부터 각자 형편에 맞게 내면 된다. 그렇지만 회비 운영만큼은 여느 대기업만큼 투명하다. "10원 한 장 허투로 쓰지 않고 수익전액은 불우이웃돕기로 쓰는 것이 우리 원칙이다. 모든 지출결산을 확실히 했기에 지금까지 보현회가 살아남은 것"이라고 안성이 회장은 자부했다.

그동안 부산 경남지역 양로원, 고아원, 소쩍새마을, 예천연꽃마을, 소년소녀가장, 군부대, 결핵요양원 등 부산불교보현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문이 퍼졌고, 점점 많은 회원들이 모였다.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요양원의 행려환자들에게는 의약품과 옷을 지원했다. 국군부대에도 매월 정기법회를 열어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불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안성이 회장은 "그동안 후원하며 아들, 딸 삼은 아이들 중 단 한사람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모두 당당하게 살고 있다. 이 아이들이 어려운 곳에서 불법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1982년 창립 당시 중장년층이던 회원들이 이제 60~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 하지만 부산불교보현회는 보현홍법청년회·보현축구봉사회 조직으로 점점 젊어지고 있다. 젊은 청년 불자들이 장애우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재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천마재활원, 성우원, 평화의집에 축구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11년째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동안 받은 상도 수십 개. 하지만 27년을 함께해온 원로멤버들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최춘자 총무는 "상 받은 것은 중요치 않다. 보현회가 한마음을 낸다는 게 중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11월 10일 창립 27년 만에 보현회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 부산 범천동에 법당과 사무실을 개원한 것. 큰 결실이지만 보현회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봉사를 한 게 아니라 그저 부처님법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부산불교보현회가 만들어가는 이곳이 바로 불국토가 아닐까. **박지원 기자**